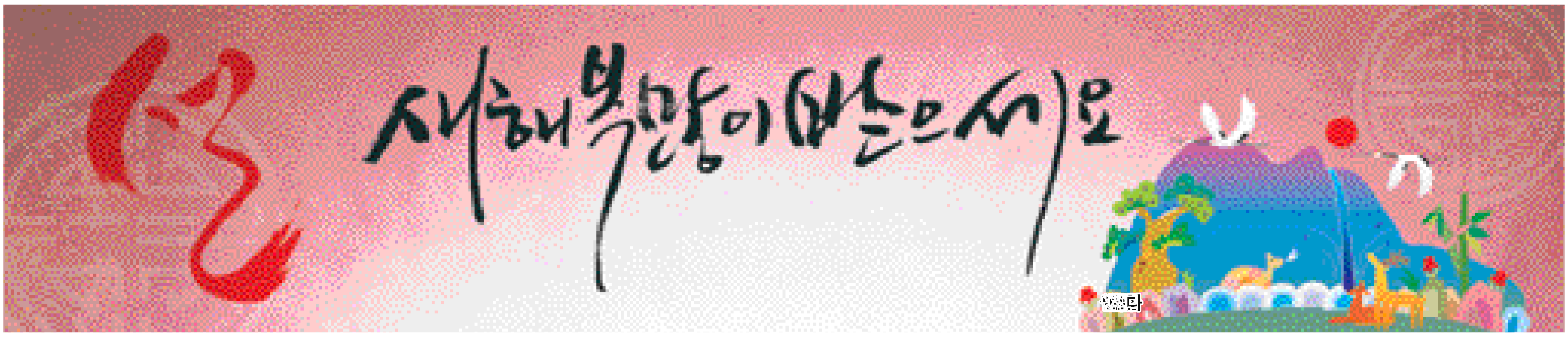
교육연합신문

2010년 2월 10일(수) 제 36 호 EduYonhap.com 구독 배달안내: 032-433-1633



교과부 2,000개 학부모회 지원

학교참여 지원사업 공모 3월 23일까지…300~700만 원씩 지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학부모들의 학교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3월 23일까지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은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전국 2,000개 학부모회에 500만원 안팎(300만원~700만원)을 지원해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더욱 활성화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2,000개 학부모회는 학교수 기준으로 전국 각급학교(11,287개)의 약 18%에 해당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학부모정책 추진방향'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업이며 이 사업을 계기로 올해 1학기부터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학부모의 참여가 본격적으로 확대돼 학교 교육의 수준과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은 학교 교육 모니터링 활동, 자원봉사 활동, 학부모 교육 등 학부모회 중심의 학교참여 활동을 중점 지원한다.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규수업, 방과후학교, 학교운영 등 학교 교육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시해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 교육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교원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학부모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지도, 저소득층·다문화가정 자녀 돌봄, 독서지도, 등하교길 안전지도 등 학부모의 전문성을 발휘한 자원봉사를 통해 학부모들이 직접 학교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녀와 함께 하는 봉사활동 등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학교 활동에 참여하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학부모회가 직접 학부모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희망하는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준비된 '인력풀'을 통해 그에 맞는 강사 등을 지원해 준다.

특히, 자기주도적 학습법, 입학사정관제 대비 자녀교육법, 고교 유형별 특징 등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학부모교육을 적극 지원한다.

지원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학부모회는 '학교참여 활동계획서'를 작성해 해당 학교를 통해 시도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학부모 참여수준, 학교참여 활동 계획 내용, 예산집행 계획 등을 평가해 지원대상 학부모회를 선정한다.

기타 학부모 참여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www.mest.go.kr) 및 해당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원석 기자 yws@eduyonhap.com

식생활 개선 뮤지컬 '어린이 청소년 식생활문화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식생활개선 뮤지컬'이 새 단장을 하고 2월 8일 김포 고촌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총 50여 회 공연에 돌입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 차광선)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이우철)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본 공연은 지난해 서울 가양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총 13개 초등학교에 찾아가 7천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후 초·중학교와 청소년단체, 시설 등에서 추가공연 요청이 쇄도하여, 올해는 그 규모를 키우고 공연 횟수도 대폭 늘릴 예정이다. <관련기사 15면>

고액수강료, 줄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 SAT 문제유출 관련 특별점검…40개 학원 중 14곳 수강료 초과

최근 불거진 미국 수학능력시험(SAT, Scholastic Aptitude Test) 문제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서울 강남일대 23개 학원이 각종 불법행위로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김경회)은 지난 달 사건이 발생한 직후 강남 등에서 SAT 과정을 운영하는 40개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강료 초과징수가 14개 학원(중복계산)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사 채용 및 해임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학원도 9개에 달했다. 장부기재가 부실한 학원도 있었다.

특히 교육당국이 최근 중점을 두고 강력한 근절의지를 보이고 있는 수강료 초과징수 행위가 40개 학원 중 14개 학원에서 드러나 강남을 비롯해 강서(목동), 노원(중계동) 등 사교육벨트 지역의 고액수강료 행태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번에 수강료 초과징수 사실이 확인된 학원들은 대부분 한 달 수강료로 70만원 이상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정해진 적정 수강료(51만원)를 훨씬 넘는 금액이다.

적정수강료의 두 배가 넘는 126만원을 받은 학원도 있었다.

시교육청은 이번에 위법사실이 확인된 학원 중 6개 학원에 대해서는 교습정지(45일 1곳, 14일 3곳, 7일 2곳) 명령을 내렸으며 8개 학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사 대상 학원 중 2개월 이상 무단으로 문을 닫은 2개 학원은 직권으로 폐원조치했다.

시교육청은 수강료 초과징수로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위법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대학 등록금과 맞먹는 수백만원의 수강료를 받는 SAT학원이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유학원과 연계된 유학비용이 합산돼 부풀려진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송경준 기자 skj@eduyonhap.com

한국교직원공제회, 윤리경영 '종합대상' 수상

한국교직원공제회가 '2010 한국 윤리경영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일보가 주최하고 지식경제부와 UN 글로벌 콤팩트, 한국윤리경영학회가 후원하는 '한국 윤리경영대상'은 올해가 3회째로 교직원공제회는 한국가스공사, 포스코건설, 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최고상인 '종합대상'에 선정됐다.

홍성인 기자 hsi@eduyonhap.com